

# 문병란 시인의 통일·민주화 염원 '직녀에게' 담았다

기념사업회, 10주기 추모시선집 발간  
'땅의 연가' 등 시집 26권서 60편 수록  
21일, 국립5·18민주묘지서 추모식

'직녀에게'는 통일의 염원을 담은 문병란 시인(1935-2015)의 역작이다. 남북의 분단을 견우와 직녀에 비유한 시는 오늘날의 한반도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지난 1987년 가수 김원중이 '직녀에게'를 만들어 부르면서 대중의 인기를 끌었다.



문병란 시인 10주기를 맞아 시선집 '직녀에게'가 발간됐다. 생전의 문병란 시인.

'화염병 대신 시를 던진' 문병란 시인 10주기(9월 25일)를 맞아 추모시선집 '직녀에게'(작가)가 발간돼 눈길을 끈다.

문병란기념사업회(회장 이명환)가 펴낸 이번 추모시선집은 문 시인의 시집 26권 가운데 가려 뽑은 60편의 시를 담고 있다.

기념사업회는 18일 간담회를 갖고 시선집 발간 과정과 기념사업회 결성,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말했다. 이명환 회장은 "문병란 시인은 민족의 통일과 민주화를 위해 작가적 소명의식으로 문필활동과 실천운동에 열정을 바치셨다"며 "오늘날 불의한 일들이 국내외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그러한 불의가 정의롭게 해결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시선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선집은 기념사업회에서 기획했으며, 고인의 민족정신을 기리는 뜻을 담아 작품 선정에 비롯해 편집 작업이 이루어졌다. 허형만 목포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김동근 전남대 명예교수, 나종영 전 광주전남 작가회의 회장, 백수인 조선대 명예교수, 박노해 시인 등이 참여했다.

화순에서 태어난 문 시인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폭압의 상황에서 5·18민주항쟁의 진실과 역사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힘을 쏟았던 남도의 대표 문



인이다. '현대문학'(1959-63)에 김현승 시인의 추천으로 '가로수', '밤의 호흡', '꽃밭'을 발표하며 등단했으며 생전 '죽순밭에서', '벼들의 속삭임', '땅의 연가' 등 다수의 시집을 발간했다.

이번 시선집에는 대표작 '직녀에게'를 비롯해 '꽃씨', '겨울 보리', '쓴맛', '무등산', '전라도 노래', '죽순밭에서', '부활의 노래', '땅의 연가', '지상에 바치는 노래' 등이 담겼다.

특히 일반 독자들이 애송하는 작품들, 시문학을 공부하는 연구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문병란 시세계의 진수'를 가늠할 수 있다.

백낙청 교수는 "고 문병란 시인의 10주기를 맞아 문단과 지역의 후학들이 시선집 출간을 추진했다"며 "반갑고 감사한 일이다. 문 시인이 한국의 민주화와 이땅의 문화에 끼친 공로를 우리 후진들이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전했다.

임현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은 "그의 시는 민중적인

호소력이 있는 데다 낭독의 기교까지 탁월해 대중집회에서 대인기였고 그의 재기발랄한 군중 집회에서의 강연 또한 대인기였다"고 회고했다.

문학 활동과 민주화운동을 함께 했던 김준태 시인은 문 시인과의 인연을 '그리운 시절'이라고 회고했다. 김 시인은 "문 선생님과 나는 여행도 참 많이 같이 했다"며 "서로의 고향을 자주 찾아가는 것은 물론이었으며 국내 도처의 여행과 태평양 건너 미국여행도 함께 했다"고 언급했다.

시선집 발간과 맞물려 고인의 10주기 추모식도 열린다. 오는 21일 오전 11시 국립5·18민주묘지 역사 의문에서 개최되는 추모식에는 문학출판계 인사들 비롯해 민주화운동 등을 함께했던 이들이 참석해 문 시인의 뜨거웠던 삶과 민족정신, 시혼 등을 기릴 예정이다.

한편 김정훈 전남과학대 교수는 "이번 작품집 발간은 문 시인의 10주기를 맞아 의미있는 일을 추진하는 취지에서 기획됐다"며 "논의 중인 기념사업회 법인화가 완료되면 문 시인의 정신과 문화세계를 선양하는 데 일조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도드리의 지난 공연 모습. <도드리 제공>

## 도드리 '스물여덟 가을의...' 28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정악에서 국악가요까지. 국악의 깊은 선율이 가을의 정취를 더한다. 창작국악단 도드리는 오는 28일 오후 6시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제28회 정기연주회 '스물여덟 가을의 문턱에서'를 선보인다.

도드리는 1998년 창단 이후 광주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민간 국악단체다. 이번 공연에서는 창작곡을 중심으로 전통 국악의 뿌리를 잇는 동시에, 오늘의 감각으로 국악의 새로운 매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무대는 아마추어 국악인들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된다. 시각장애인 그룹 '광주영광원 참빛누리관'이 '엄마야 누나야', '희망가'를

들려주고, 국악 동호인 모임 '트라이앵글'이 '홀로 아리랑'과 '침필필'을 연주하며 가슴 따뜻한 분위기를 만든다.

이후 도드리의 본 공연이 이어진다. 광주를 노래한 국악관현악곡 'Again 광주'가 힘차게 공연의 문을 열고, 위촉 신작 '가을의 문턱에서'와 '허수아비'가 계절의 정취를 전한다. 대표곡 '섬진강'을 비롯해 성악과 함께하는 신작 '가을사랑', '저들의 저들국' 등 전통과 새로운 시도가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인다. 마지막 곡 '아리랑 광주'는 관객들이 함께 따라 부르며 무대를 마무리하게 된다.

김재섭 도드리 이사장은 "스물여덟 번째 정기공연에 맞는 도드리가 현재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자 많은 창작곡을 준비했다"며 "관객들이 국악의 매력을 온전히 맛볼 수 있도록 알찬 무대를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전시 감상과 요가를 결합한 프로그램의 모습. <화순군립운주사문화관 제공>

## 작품에 스며드는 순간, 요가로 피어나는 나

화순군립운주사문화관 기획전 연계 이색체험 성료

화순군립운주사문화관이 전시 감상과 요가를 결합한 이색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지난 13일 기획전 '스며들고 피어나다'와 연계한 특별 프로그램 '스며드는 순간, 피어나는 나'가 그것.

이번 프로그램은 전시실을 단순한 감상의 공간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함께 경험하는 무대로 확장한 것이 특징이었다. 참가자들은 전시 작품을 감상한 뒤 요가 동작과 호흡, 명상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예술과 삶이 교차하는 순간을 경험했다.

행사는 세 단계로 진행됐다. 먼저 학예사가 전시의 기획 의도와 작품을 설명해 이해를 도왔고 이후 오로시프로젝트 소속 강사의 지도 아래 요가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호흡과 명상으로 긴장을 풀고 '별이 된 호박',

'오래된 시간' 등 작품과 연계한 동작으로 균형과 확장을 경험했다. 마지막에는 바닥에 누운 이완 자세와 차임 소리를 통해 감정을 정리하며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참여자들은 "전시 감상과 요가가 어우러져 몸과 마음이 편안해졌다", "작품을 보며 그 감정을 몸으로 표현하니 전시에 더 깊이 몰입할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화관 오승규 담당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관람객이 예술을 오감으로 체험하고 감정 환기를 통해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전시와 연계한 다양한 융합 프로그램을 기획해 문화관이 친근하고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허귀령 개인전, 10월 12일까지 드영미술관

### 삶의 무게 감내하며 서 있는 인간의 초상

연과 파초는 삶의 무게를 감내하며 서 있는 인간의 초상을 대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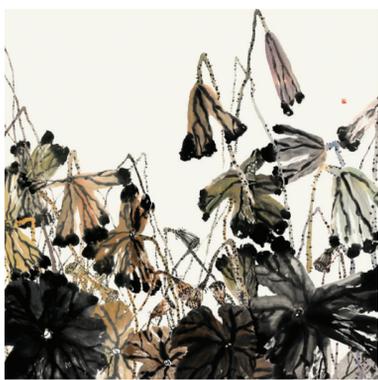
자연을 모티브로 한 작품은 더러 인간의 삶에 비유된다. 작가는 자연을 매개로 자신을, 나아가 인간의 보편적 양상을 그려낸다. 사유와 여백, 먹의 번짐과 스민을 창작의 주요 기제로 삼는 문인화에서 자연은 더더욱 주요 오브제일 수밖에 없다. 자연이 상징하는 의미와 기호 등은 다채로운 해석과 공유의 장이 된다.

'시간의 선물'을 주제로 첫 번째 전시를 여는 문인화가 허귀령. 허 작가는 오는 10월 12일까지 동구 드영미술관(관장 김도영)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지난 십 수 년 간 작업의 결과물을 선보이는 자리로, 대표 소재인 연(蓮)과 파초(芭蕉)를 그린 작품들을 볼 수 있다.

작품 속 연방죽과 파초밭은 전통 문인화 형식과는 다른 시각적 언어로 구현돼 있다. 사생과 형상을 넘어 관념과 의경(意境)의 어우러짐을 특유의 붓질로 형상화 한 것이다. 작품들은 단순한 자연의 표현을 넘어 인간의 삶이 투영돼 있어 깊은 울림을 준다. 한편으로 연과 파초는 시간고난한 삶의 무게를 감내하며 서 있는 외로운 인간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연, 시간의 선물'은 빛나던 푸르른 시절을 지나 생



'연, 시간의 선물'

의 막바지에 다른 연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자연에 순응하며 사멸의 시간으로 접어드는 과정을 작가는 '시간의 선물'로 규정했다. 생로병사라는 엄정한 순환의 법칙을 따르는 연의 모습에서 인간 삶의 유한함과 처연함을 떠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허 작가는 "시들어가는 자연의 모습이 마치 공연이



'파초, 여름으로의 초대'

끝나 객석에 아무 것도 남지 않는 공허함 같은 느낌을 환기할지라도 거기에 담긴 인내와 사랑의 시간을 담아내고 싶었다"며 "작품을 통해 우리 주변의 자연 풍광이 던지는 삶의 의미를 다양한 시각에서 사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세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            |               |
|-----|------------|---------------|
| 본점  | 서석동 남동성당 옆 | 062) 227-9940 |
|     |            | 062) 227-9970 |
| 서울점 | 종로 5가역 1층  | 02) 765-9940  |
| 순천점 | 중앙시장 앞     | 061) 752-9940 |